북스

Books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마음 씀씀이 情

情이란 무엇인가

정운현 지음

흔히, 미워도 이것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한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떼어내기도 힘들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미웠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반갑게 해주는 이 것. 외국인들은 쉬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만의 마음 씀씀이, 이것은 무엇일까?

언론인 출신 정운현씨가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정'을 주제로 한 '情이란 무엇인가'를 냈다.

그는 정을 부부간의 정, 형제간의 정, 남녀간의 정, 친구간의 정, 사물을 사랑하는 물정(物情)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정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와 속성을 살펴본다.

유명 시와 글을 통해 애절한 정의 실체를 파헤친다.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장한가', 성호 이익의 '우계전', 영화 '워낭소리' 등 고전과 영화, 문학 작품을 넘나들며 정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봤다.

저자는 "정은 따뜻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은근하며, 타산적이지 않고 한번 생겨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부부간의 정은 지난 1998년 경북 안동 옛 무덤에서 발굴된 400년 전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길까요? 당신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 수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정'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마음씀씀이다. 사진은 시골노인에게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우체부의 모습.

남편을 잃은 부인의 애절함이 묻어있는 이 편지는 돌아서면 남보다 못하다는 현대의 부부관에 많은 의문을 던져준다.

또 유배지에서 보낸 추사 김정희의 '통곡', 다산 정약용의 '꿈 속의 아내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부부의 정이 담겨있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26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친구간의 정을 나눴다. 박제가의 '지극한 벗'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는 인생을 함께 걸었던 벗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에게는 백동수라는 벗이 있었다. 박제가는 "이른바 친구는 반드시 술잔을 주고받으며 교제에 힘을 쏟고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사람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백동수와의 우정을 글로 담았다.

형제간의 정은 '시경', 성호 이익의 '우계전'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시경'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시가 몇 편 있는데 이기동의 '시경강설'이 대표적이다. "죽을 고비 닥쳤어도 형젠 서로 생각하네/ 어려운 일 당할수록 형제들은 구해주네"란 구절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진한 애정이 담겨 있다.

정에 대한 이색적인 글과 함께 사진기자 김선규씨가 정이 물씬 풍기는 사진을 곁들여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책보세·1만6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간개념·건물 배치 등 쉽게 풀어 쓴 주택풍수

천문·지리·인사와 관련된 동양학 고전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이 주택풍수를 알기 쉽게 풀어쓴 '주택풍수학 통론'을 출간했다.

주택풍수학은 주거공간에 중점을 둔 풍수학으로 자연공간과 실내에 유영하는 기(氣)의 흐름을 살펴서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잘못돼 어긋나 있거나 모순된 기운을 교정하고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책은 공간의 개념부터 주택풍수의 기본 조견표, 실내·외 건물의 합리적인 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황제택경' '양택지남' 등 주택풍수 분야의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할 것들을 부록 형식(원문, 독음문)으로 실었다.

〈안암문화사·2만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잡동사니로부터의 자유

브룩스 팔머 지음

행복해지려면 불필요한 잡동사니 버려라

'잡동사니'는 여러 가지 물건이 한데 뒤엉킨 채 존재하는 더미를 말한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쓰레기들도 다 잡동사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잡동사니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버려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이든 마음이든 '버리는 일'은 의외로 쉽지가 않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선택이 문제다.

'잡동사니로부터의 자유'는 필요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미국의 잡동사니 처리 전문가(Clutter Buster)인 브룩스 팔머. 낯선 사람의 집에서 물건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그의 직업이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로 책을 시작하는 저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삶에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한다.

집이든 회사든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을 장악한 채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으며 잡동사니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해져 집중도 안 되고 쉽게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잡동사니가 무엇이고 이러한 잡동사니들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잡동사니를 삶에서 몰아내려면 무엇보다 개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잡동사니가 무엇이고 이러한 잡동사니들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직시하고 무엇이 내게 중요한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게 쓸모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련없이 버리자. 일단 시작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328쪽)

이를 위해 책 말미에 제시한 '잡동사니 비우기의 원칙'을 참조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원제는 'Clutter Busting'

〈초록물고기·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시네 리테르=문학과 영화의 만남에 대한 열여섯 편의 글을 모았다.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스캔들' '시' 등 다양한 영화와 이청준, 장정일, 박민규 등의 여러 문학작품을 넘나들며 영화와 문학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본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김형중, 복도훈 등 문학계에서 활동 중인 젊은 연구자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문예중앙·1만5000원〉

▲생강=소설가 천운영(40)의 두 번째 장편. 쫓기는 고문기술자 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딸의 내면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지난해 창비 문학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으로, 폭력과 악의 밑바닥에서 만나게 되는 맨얼굴의 인간적 진실을 담고 있다. 〈창비·1만1000원〉

▲간이역 간다=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모르는 조그만 간이역. 121명의 시인이 전국의 사라져가는 간이역을 찾아 그곳의 추억과 그리움을 시로 형상화했다. 이건청 시인은 구둔역, 허형만 시인은 극락강역, 오세영 시인은 추전역, 서정춘 시인은 원창역, 전윤호 시인은 별어곡역을 찾아가 노래했다. 〈굿글로벌·9500원〉

▲인간의 벽 1, 2, 3=제1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인 이시카와 다쓰조(1905~1985년)가 1957~59년 일본 사가현 교사들의 투쟁을 소재로 쓴 소설로 1980년대 국내 출간된 지 20여 년 만에 재출간됐다. 평범한 시골 학교 여교사인 오자키 후미코가 겪는 여러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양철북·각 권 1만3000원〉

▲알바니아의 사랑=알바니아를 배경으로 2대에 걸친 파국적인 사랑을 그린 스페인 작가 수사나 포르테스의 소설. 유럽 속의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알바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지배로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 됐다. 소설은 그곳의 권력 실세인 장군 자눔 라드지크와 그의 두 아들을 둘러싼 금지된 사랑을 그린다. 〈들녘·1만2000원〉

▲영재를 만든 책 배달부=언어 영재 김재형 군의 아버지가 펴낸 생생한 교육기. 평범한 아빠 김정호씨는 둘째 아들 재형 군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내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15개국 언어를 독학으로 깨우치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었다. 재형 군이 직접 쓴 일기를 곁들여 김정호 씨만의 자녀 교육 철학과 훈육 방식 등을 대화체로 풀어간다. 〈김영사·1만2000원〉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낙타 등 지구 생태계 대표 동물들의 진화 이야기. 치타, 캥거루, 코끼리, 박쥐, 고래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이지만 미처 알지 못한 진화의 비밀을 파헤친다. 여덟 종의 동물들이 어떻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냈고 또 공존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부키·1만4000원〉